

보건계열 대학생의 감염예방행위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 : 건강신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이윤미^{1*}, 김혜진¹, 이지은¹
¹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AIMS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보건계열 대학생은 감염예방행위가 특히 요구된다.
- 감염관리지식은 감염예방행위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며, 건강신념은 감염예방행위 수행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활용된다.
- 그러나 감염관리지식과 감염예방행위 수행도 간의 관계에서 건강신념의 하위요인이 매개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지식과 감염예방행위 수행도 간의 관계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건강신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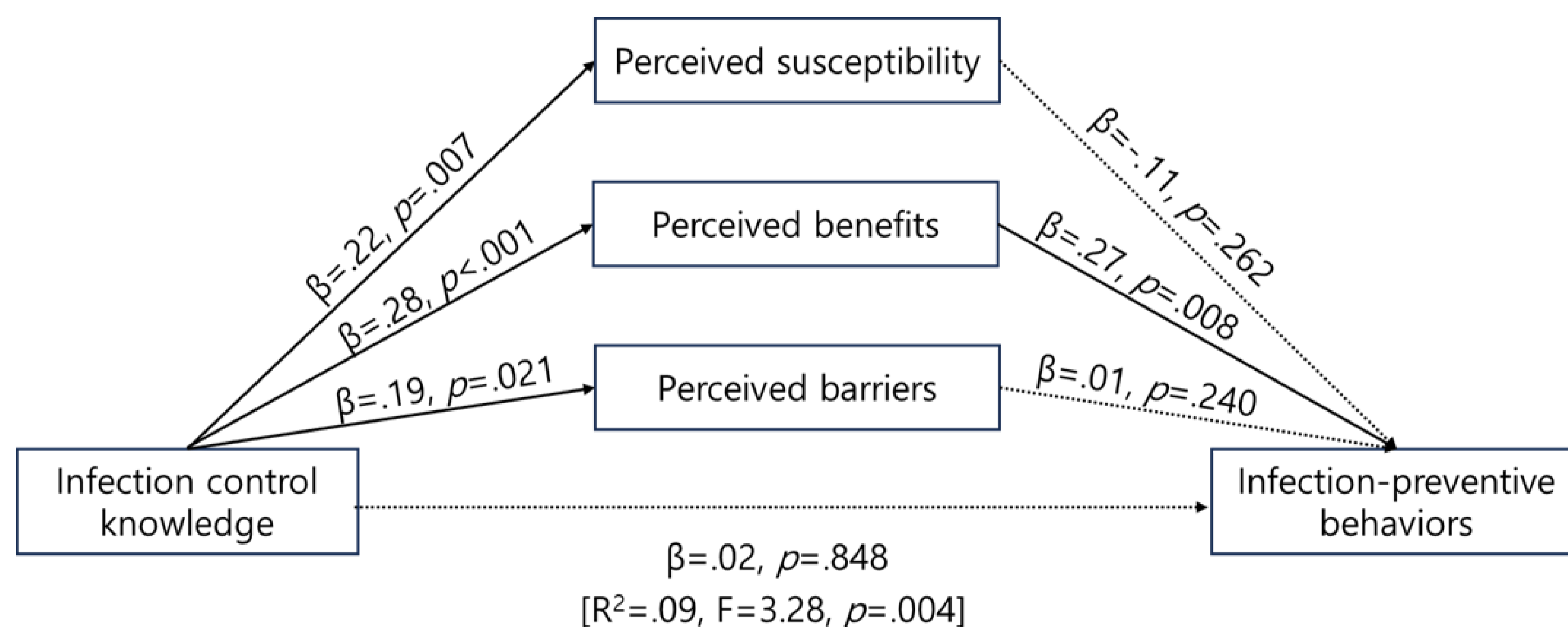
METHODS

- 본 연구는 횡단적 서술적 연구로, 보건계열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감염관리지식, 감염관리에 대한 건강신념(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행동계기), 감염예방행위 수행도를 측정하였으며, SPSS 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RESULTS

Table 1. Level of Infection Control Knowledge, Health Beliefs, Infection-Preventive Behaviors and Difference of Infection-Preventive Behavi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0)

Variables	Possible range	Mean±SD or n (%)	Mean±SD/ items	Infection-preventive behaviors		
				Mean±SD	t/F (p)	Scheffé's
Age (year)		23.68±4.70			-0.03 (.697)	
Gender	Female	140 (70.0)		78.58±6.17	0.67 (.505)	
	Male	60 (30.0)		77.88±7.82		
Major	Nursing ^a	110 (55.0)		79.60±5.73		
	Clinical laboratory science ^b	40 (20.0)		76.87±7.49	5.12 (.002)	a>c (.007)
	Dental hygiene ^c	25 (12.5)		74.42±9.44		
	Physical therapy ^d	25 (12.5)		79.17±3.86		
Infection control knowledge	0~29	24.20±2.40				
Health beliefs		29~145	118.0±12.82	4.07±0.44		
	Perceived susceptibility	8~40	33.47±4.22	4.18±0.53		
	Perceived severity	4~20	16.60±3.14	4.15±0.79		
	Perceived benefits	6~30	26.37±3.70	4.40±0.62		
	Perceived barriers	8~40	31.56±7.48	3.95±0.94		
	Cues to action	3~15	10.0±3.11	3.33±1.04		
Infection-preventive behaviors	21~84	78.16±7.10				



- 감염관리지식은 지각된 민감성($\beta=.22, p=.007$), 지각된 유익성($\beta=.28, p<.001$), 지각된 장애성($\beta=.19, p=.021$)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지각된 유익성은 감염예방행위 수행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27, p=.008$).
- 지각된 유익성은 감염관리지식과 감염예방행위 수행도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95% confidence interval [0.00, 0.19]) <Figure 1>.

Figure 1. A Mediation Model of Health Belief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ection Control Knowledge and Infection-Preventive Behaviors

CONCLUSIONS

- 보건계열 대학생의 감염예방행위 수행도는 보건계열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대학생들이 치위생과 대학생보다 더 높은 수행도 점수를 보였다. 이는 간호학과 교육 커리큘럼이 임상실습을 중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염예방 관련 실습이 더 자주 포함되기 때문일 수 있다.??
- 보건계열 대학생의 지각된 유익성이 감염관리지식과 감염예방행위 수행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감염관리지식이 많을수록 감염예방행위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감염관리지식이 많을수록 감염관리가 유익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것은 감염예방행위 수행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감염예방행위를 촉진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의 유익성을 강조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실습하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신념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감염관리지식과 감염예방행위 수행도 간 관계에서 지각된 유익성의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나, 단일지역 내 한 대학의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연구 결과를 전체 보건계열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기관의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